

- 주요 뉴스: 유로존 1월 소비자물가, 사상 최고치,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 압력 증가 예상
 - 미국 1월 ADP 민간고용, 예상치 큰 폭 하회. 오미크론 등이 영향
 - OPEC+, 최근 유가 급등에도 현행 완만한 증산 기조를 유지
 - 미국, 러시아 억지를 위해 동유럽에 3000명 파병. 러시아는 이를 강하게 비난

-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양호한 기업실적과 민간고용 부진 등이 영향

주가 상승[+0.9%], 달러화 약세[-0.4%], 금리 하락[-1bp]

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양호한 기업실적 등으로 상승 지속(최근 4일 +6.1%)
유로 Stoxx600지수도 기업실적 호조 및 금융주 강세로 0.5% 상승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1월 민간고용 부진 등으로 매도 증가(최근 4일 -1.3%)
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.3%, 0.2% 상승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외환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에 기인(최근 4일 -2bp)
독일은 유로존 1월 소비자물가 상승 등으로 강보합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02.0원, -4.5원) 0.4% 하락(전거래일 대비), 한국 CDS 보합

		2/2일	2/1일	전일대비			2/2일	2/1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589.4	4,546.5	0.94%	국채 금리 10y	미국	1.78%	1.79%	-1bp
	유럽	477.01	474.86	0.45%		독일	0.04%	0.04%	0bp
	중국	휴장	휴장	-	CDS 5y	한국	25bp	25bp	0bp
	일본	27,534	27,078	1.68%		중국	49bp	48bp	1bp
	한국	휴장	휴장	-	위험 지표	EMBI+	-	412	-
환율	달러지수	95.99	96.39	-0.42%		VIX	22.09	21.96	0.59%
	유로화	1.1305	1.1272	0.29%		WTI유	88.26	88.20	0.07%
	엔화	114.46	114.71	0.22%	원자재	구리	448.1	443.4	1.06%
	위안화	휴장	휴장	-		금	1,806.8	1,801.2	0.31%
	원화	휴장	휴장	-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유로존 1월 소비자물가, 사상 최고치.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 압력 증가 예상

- 유로스탯에 따르면, 같은 달 소비자물가(CPI)는 전년동월비 5.1% 올라 전월(5.0%) 및 예상치(4.4%) 상회. 에너지, 식료품 등 변동성이 높은 요인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동월비 2.3% 올라 '21년 12월(2.6%) 대비 하락
- 시장에서는 독일 판매세 조정과 관련된 기저효과 소멸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에너지 가격의 큰 폭 상승(28.6%) 등으로 오히려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. 다만 공산품 물가상승률은 둔화(2.9%→2.3%)
- ECB가 이번 주 통화정책회의에서 중요한 정책 결정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. 그러나 높은 수준의 역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입장을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할 가능성. 시장에서는 금년 말 혹은 내년 초 금리인상을 전망
- Natixis의 Dirk Schumacher는 당국이 인플레이션에 상방 위험이 있으며, 그 동안 인플레이션 전망이 안일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. 또한 전반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높으며 이는 ECB가 좀 더 매파적 입장을 취하도록 만든다고 진단
- 반면 ING의 Bert Colijn은 역내 근원 인플레이션 및 공산품 물가 하락으로 ECB가 조기 금리인상 압력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. 또한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임금인상 압력이 증가하는 2차 효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1월 ADP 민간고용, 예상치 큰 폭 하회. 오미크론 등이 영향

- 같은 달 민간고용은 30.1만건 감소를 기록하여 전월(77.6만건 증가) 및 예상치(20.7만건 증가) 모두 하회. ADP의 Nela Richardson은 오미크론 여파가 노동시장 회복을 저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일시적 현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

■ 미국 재무장관, 기후변화 위험 고려한 은행 자본규정 강화는 시기상조

- 옐런 장관은 현 상황에서 기후변화 위험에 따라 은행자본 규정을 바꾸는 것은 너무 이르며, 오히려 그에 앞서 개별 기업에 대한 위험 평가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

■ 골드만삭스, 연준의 양적긴축은 국제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유도할 가능성

- Praveen Korapaty 스트래티지스트는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가 국제시장의 유동성 부족을 초래하고 가격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

■ 독일 경제연구소 Ifo, 소매업체의 공급 병목 현상이 완화

- 소매업체들 가운데 주문받은 상품을 공급할 수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7.1%를 기록하여, '21년 12월의 81.6%에서 하락. Ifo의 Klaus Wohlrabe는 업체들이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는 어려움이 작년 성탄절 이후 다소 완화되었다고 진단

■ 일본은행 총재, 대규모 통화완화가 은행권 수익성을 저해했다는 주장을 반박

- 구로다 총재는 저금리 여건이 은행 경영여건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나 대규모 통화완화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졌으며, 은행의 수익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

■ OPEC+, 최근 유가 급등에도 현행 완만한 증산 기조를 유지

- 다수의 관계자에 따르면, 회원국들은 미국과 인도 등이 대폭적인 증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존과 동일하게 일일 40만배럴 증산에 합의. 공동기술위원회는 금년 하반기 일일 130만배럴의 공급 과잉 국면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

■ 미국, 러시아 억지를 위해 동유럽에 3000명 파병. 러시아는 이를 강하게 비난

-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에 3000명의 군대를 파병하고 이를 통해 NATO(북대서양조약기구)가 미국 및 동맹국에 중요하다는 신호를 보낸다고 발표. 러시아는 이러한 행위가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정치적 해결 여지를 축소시킨다고 비판

■ 호주 중앙은행 총재,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

- 로우 총재는 향후 긍정적인 성장률을 예상하면서 금년 하반기에 금리인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언급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2/3 현지시각 기준)

- ECB 및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, 미국 1월 ISM 서비스업 경기지수
- 미국 1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, 미국 및 유로존 1월 마켓 종합 PMI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- **미국 금융시장, 변동성 제어를 위한 연준의 우호적 개입은 어려울 전망 - Financial Times**
(Has the Fed 'put' been put to bed?)
 -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과거와 차이점은 양적긴축. 연준의 자산 관련 계획 신호는 시장을 움직이는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. 연준의 금리인상이 공급망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은 아니지만, 총수요와 인플레이션 기대를 낮추는 요인
 - 시장에서는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 억제를 위해 연준이 다시 개입할 것이라고 기대. 하지만 이러한 변동성이 심각한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, 변동성 억제가 책무가 아닌 연준의 개입은 기대난
- **ECB 통화정책 회의, 금리인상 우려 불식을 위한 신중한 의사소통이 필요 - 블룸버그**
(ECB's Lagarde Needs To Chose Her Words Carefully)
 - 최근 유로존 경제가 역내 정치·경제적 불안정으로 프랑스 등 주요국의 국채 수익률이 급등. 또한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에도 5%를 상회하며 사상 최고치. 이에 시장의 금리인상 우려 확대가 불필요한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
 - 그러나 에너지 가격 등을 제외하면 유로존 물가상승률은 목표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. 이에 ECB는 경기부양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하며, 이와 관련 시장의 신뢰를 얻고 향후 불필요한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 과제
- **미국 노동시장, 개인저축 감소·이민정책 완화 등으로 수급 개선 전망 - Financial Times**
(Why US workers will return to the labour market)
- **전세계 기업 재고 증가, 장기 인플레이션 추세를 반영한 의도적 노력의 결과 - 블룸버그**
(Rise in Inventories Sounds an Alarm About Inflation)
- **영국 고물가, 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 및 파업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 - Financial Times**
(Strikes: soaring UK inflation spells an end to industrial inaction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jsjeong@kcif.or.kr